

침뜸역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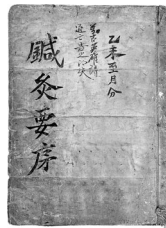
발행일 1644년(인조22년)



침구경험방 어떤 책임가 6면
취재수첩 6면
‘신의’의 가난한 생활



조선 침구전문업종 제도화 과정 7면
침구경험방 간행 배경 7면
전란 후 침의들 7면



침구경험방 의료사적 위치 9면
건강칼럼 9면
허임은 누구인가 10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 침구경험방 출간!

침의 허임, 평생의 임상 담아 쉽고 간결하게 정리
조선의 독창적 침구전문서 첫 선 “만백성 건강하게”

1644년(인조22년) 침과 뜸으로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침의(鍼醫) 허임이 평생의 임상을 바탕으로 집필한 침구경험방이 마침내 간행됐다. 실생활에서 손쉽게 써 먹을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만든 이 책이 나오에 따라 이제 백성들이 증세에 맞춰 치료하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접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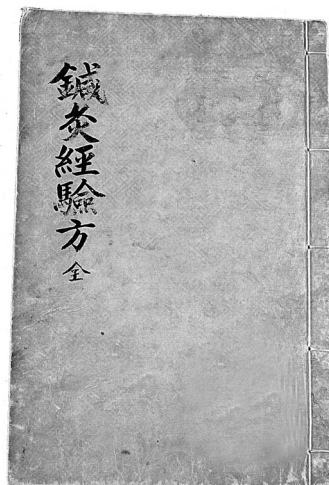
저자 허임은 서문에서 “갑히 스스로를 옛사람의 저술에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생동안 고심한 것을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읽는 사람들이 궁

리해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경험을 후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을 밝혔다.

국가의료의 주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내의원 제조 이경석은 책의 발문을 통해 “침구경험방의 간행은 임금님께서 만백성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려는 뜻을 받든 것”이라며 “이것은 마땅히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해야 할 것이며 없애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선의 의서는 대부분 중국 의서를 수입하여 그대로 쓰거나 혹은 재편집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조선 사람들의 임상상을 바탕으로 만든 독자적인 침구전문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병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실생활에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온 나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침구경험방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 가운데서 백성들의 크나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침구경험방 서문과 발문

에서 발전한 우리의 의술이 정리된 것으로, 침과 뜸이 병들과 아픈 백성들에게 유용한 생활의술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책은 조선 사람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져 조선의학의 선

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간행한 침구경험방은 영의정 김류의 명으로 호남관찰사 목성선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국가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련기사 6면>

“혈을 정하는 일은 침의가 전담하라!”

선조 “다른 어의들 간섭 말라” … 내의원 침의들 위상 높아져



조선에서 침구전문업종 제도가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된 이후에도 내의원 침의들은 어의들의 지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임진왜란 이후 침의들의 위상이 향상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선조실록에 임금이 직접 침의들의 독립적인 시술을 하도록 명하는 모습이 있어 흥미를 끈다.

임진왜란이 시작 된 이후부터 침구의 효능에 대한 선조의 신뢰는 갈수록 높아졌다. 1605년(선조38) 8월 4일 선조는 어떻게든 침

의가 서울 근처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자신과 사대부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1606년 4월25일 선조는 침을 맞고 싶다고 하면서 “혈(穴)을 의논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말고 침의(鍼醫)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선조는 침혈을 정하는 일에 어의가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침의가 전담하도록 하라는 주의를 준 것이다. 선조는 이후 며칠 간격으로 침의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침을 놓도록 하였다.

1607년 가을에도 선조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4일 간격으로 침을 맞았는데, 이때도 “침혈(鍼穴)을 감하는 것은 채유종(蔡有終)의 말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의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침의 채유종이 직접 혈을 정했는지 다른 어의가 관여 했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침의 채유종이 직접 침놓는 혈 자리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정했다는 보고를 듣고서야 의심을 풀었다.

침의들이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 내의원 침의가 되었으나 이때를 전후하여 내의원에서 침의들의 독립적인 위상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유종은 당시 신의(神醫)로 알려진 유명한 침의였다. 침의 채유종의 아들 채득기(1605년~1646년) 또한 내의원 침의로 활동했다. 채득기는 사의경험방의 원저자 네 명 중 한사람이기도 하다. 당대의 명의로였던 채득기는 경사백가(經史百家)에도 통달하였으며 특히 역학에 밝았다.

동의보감, 중국 의방서 집대성

침구부문 옛 의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1613년(광해군 5년) 내의원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은 그때까지 존재해왔던 중국의 의방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편집했다. 이 가운데 침구분야는 병증별로 고금의 침구처방을 약물처방과 함께 수록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권인 25권을 침구편(鍼灸篇)으로 편재하고 있다.

침구경험방보다 30여 년 앞서 나온 동의보감은 의학대전 재구성을 통한 집대성의 의미가 대단히 크고, 침구부문도 옛 의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했다.

한편 침구경험방의 저자 허임은 허준이 선조의 사망으로 서거 후 귀양을 갔다 돌아온 뒤에도 함께 내의원에서 활동했고, 광해군 시절 동의보감의 편찬과정과 여러 의서의 판본제작과정도 지켜봤다. 이는 허임이 침구경험방을

펴내는데 좋은 건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허임 제자 최우량 내의원 특채

1641년(인조19년)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5월 19일 내의원이 임금에게 “공주에 사는 최우량이 허임에게서 침을 배웠는데 그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공주에 사는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 최우량(1599년생)이 서울에 왔다가 재상(宰相) 중에서 장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 침을 놓자 곧바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내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5월20일 최우량에게 오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인 부사용(副司勇)의 관직을 주고 서울에 머물게 했다. 그 후 최우량은 내의원 침의로 활동했다.